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7년 11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29.(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1. 29.(수)	담당부서	자원개발전략과
담당과장	이승렬 과장(044-203-5140) 윤정원 팀장(044-203-5150)	담 당 자	문준선 서기관(044-203-5141) 김은성 사무관(044-203-5151)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

- ①민간중심의 혁신TF 구성, ②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와 공사의 반성
③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사업 재평가 및 대책수립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017.11.29(수), 15:00,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착수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음

○ 금번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하게 된 것임

○ 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맡기로 함

□ 금번 착수회의에서는 (1)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2)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하였음

[1]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공사 자체점검 결과

□ (현황) 산업부와 3개 공사는 '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하였음

○ '17.6월 기준, 투자(43.4조원) 대비 회수(16.7조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6조원)만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됨

○ 자원개발률은 '08년 5.7%에서 '16년 14.8%로 상승하였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된 물량('16)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침

* 비상시 도입가능 물량도 제한적 : 석유 47%, 가스 64%, 광물 92% 수준

○ 국내기업이 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임

○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됨

* 부채비율('08→'16) : 광물(85%→자본잠식), 석유(73%→529%), 가스(438%→325%)

□ (원인)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全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하였음

① 셰일가스 확대 등 全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음

②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高비용-高위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08년 이후 투자사업들의 수익성이 '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

* '03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들의 영업손익 Break-even 유가는 '07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들에 비해 배럴당 30불 높아짐(석유)

③ 외국기업들은 신중한 투자로 위험을 분산하였으나, 국내 공기업들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하여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

	메이저	독립계	석유공사
▪ 日생산량 증가율('07~'12)	6.5%	19.8%	289%
▪ 자기자본 이익률('14~'16)	4.9%	△17.8%	△52.8%

* (메이저) 액손모빌, 쉐브론, 쉘, BP, 토탈, (독립계) 코노코필립스, 아나다코, 옥시덴탈, 아파치, 마라손

④ M&A 등 추진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함

* (사례) 통상 인정되지 않는 자원량도 포함(D사업, E사업), 업계평균 대비 지나친 생산량 가정(B사업, A사업), 과도하게 높은 가격상승 전망(P사업 등)

⑤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는 등 변칙적 주식투자(8천억원 투자, 5천억원 손실)

* 광물공사 캐나다 A, 석유공사 미국 B, 가스공사 캐나다 C 프로젝트 등

try of Trade
try and Energy

김혜련 / 홍보담당관 / 2017-11-29 11:08:56

⑥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총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증

* 3社 부채('07년 12.9조원→ '16년 54.3조원), 이자비용('07년 3천억원→ '16년 1.3조원)

⑦ 사업성사를 위해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미비하는 등 계약상 문제점도 적지 않았음

* (사례) 불가항력 상황 등 사업중단시 투자비 회수조항 부재(A사업), 미개발 광구 반납기한(유사사례 6년, A사업 3년), 생산율 향상목표(유사사례 10%, A사업 25%) 등

⑧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공사별 주요사례 참조)

⑨ 조직, 인력은 확대되었으나, 운영능력 제고, 기술습득 등은 등한시하여, 자원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탐사사업에서 큰 규모의 손실 발생

* 3개 공사 탐사실패 손실 : ('03～'07) 8천억원, ('08～'12) 2.4조원, ('13～'16) 700억원

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요사항 위임(출자, 사채발행) 등 과도하게 공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음

* 재무관리(기재부) 및 사업관리(산업부) 부처간에 관리 사각지대도 발생

⑪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음

* 3개 공사 사외이사 중 전문가 비중 저조(20%), 광물공사는 1명에 불과

⑫ 자원외교 시 MOU를 최종적 성과인 것으로 홍보하고, 당초 홍보 대비 실적은 부진하여 국민적인 상실감을 초래하였음

* '08년 이후 MOU 82건 중 최종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한 실정
* 예) 쿠르드사업 (홍보) 국내 2년치 소비량 유전획득 → (현 실태) 탐사 실패(4개 광구)

○ 3개 공사들도 개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TF에 보고하였음 (공사별 주요사례 별첨)

□ (향후과제) TF에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음

○ 예상 회수율은 국정조사 당시에 121%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에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최근 3년간 실제 회수액도 국정조사 당시의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짐

* '14～'16년 회수액 : (국조시 전망) 498백만불, (실적) △2,669백만불

○ 이에 따라 TF는 민간중심으로 제3자의 객관성있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 후 사업별 처리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함

(2)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추진계획

□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임

○ 분과회의 이후, 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81개 사업들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群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

□ 박중구 위원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문준선 서기관(☎ 044-203-51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 홍보담당관 / 2017-11-29 11:08:56

참고1 공사별 주요 부실사례

< 석유공사 >

○ (B사업) 당초 총액방식으로 EPC계약하였으나 업체가 공사비 증가로 수행이 어렵다고 하자 실비정산으로 계약변경하여 두 배 이상인 6억불 지급

○ (D사업) 가스처리시설 이상으로 제품품질이 저하되어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1년여간('15~'16) 방치(1백만불 손실)

○ (N사업) 사업인수 경제성 분석시 통상 인정되지 않는 자원량을 포함하여 자산가치를 과대 평가(예상회수액 10억불 이상 과다 계상 추정)

○ (S사업)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대규모 강관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야적장에 수년간 방치('09년 인수 후 재고자재 30백만불 증가)

○ (J사업) 내륙해의 특성파악 부족으로 환경모니터링, 보험 등 탐사 관련 부대비용 12백만불 증가

< 광물공사 >

○ (B사업) 운영사 부도 등 위기상황에서 손실(1천억원)을 피하기 위해 투자 지속('12), 현재까지 1.6조원을 투자했고 1.5조원 손상처리

○ (A사업) 운영사의 채무 2.3억불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을 제공했다가 전액 대납하였고, 회수가능성 불투명

○ (I사업) 지분인수 금액 협상과정에서 차액 150만불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해 추가로 지불하고, 이사회 보고는 누락

○ (S사업) 개발 불가능한 습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10), 투자비 전액(176억원) 손실 처리

○ (C사업) 1.8억불 규모 주식 매입 후 손절 기준 등 관리방안 없이 방치, 매입가 대비 최대 93%까지 주가 하락

< 가스공사 >

○ (A사업)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 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 12.685% 대신 통상적인 할인율 10%로 경제성을 평가하여 투자

○ (H · W사업) 내부수익률(IRR) 9.2%로 투자 기준에 미흡한 사업을 타 사업과 합산한 수익률(12.6%)로 평가하여 투자

참고2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개최계획

※ 회의 비공개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7.11.29(수), 15:00～17:00, 서울(드래곤시티호텔)

○ **참석자 : 총 23명**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등 학계 · 회계 · 법률 · 시민단체 · 연구기관 전문가, 산업부, 기재부

*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사장(대리) 및 본부장 참석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회의내용 :** 자체점검 결과보고, 정책용역 등 TF 운영계획

□ 세부계획

○ **15:00～15:05('05) 모두말씀 (위원장)**

○ **15:05～15:55('50) 안건보고**

· 해외자원개발 실태점검 결과 및 TF 운영계획 (산업부)

· 공사별 자체점검 결과 (3개 공사)

○ **15:50～16:55('65)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 **16:55～17:00('05) 종합정리 (위원장)**

김혜련 / 홍보담당관 / 2017-11-29 11:08:56

참고3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분과
위원장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정부 (2)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간사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
학계 (4)	배위섭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석유
	최선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 교수	광물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가스
	고기영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석유
회계 (3)	이광열	EY한영회계법인 상무	석유
	류기홍	대주회계법인 이사	광물
	배홍기	삼정KPMG회계법인 부대표	가스
법률 (4)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석유
	류권홍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광물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가스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광물
연구기관 등 (3)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가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	광물
	한상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석유

* 위원은 추가 또는 변경될수 있음

Minist
Indus